‘빛고을생활권행정협’ 본격 활동

광주시·5개 구·전남 5개 시군 참여 첫 회의

남도문화 융성 관광자원 등 15개 사업 협력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광역지자체와 인접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생활권 행정협의회를 발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시와 생활권을 같이하는 인접 시·군·구 등 총 11개 자치단체가 참여한 ‘빛고을생활권행정협의회’가 2일 나주시청에서 첫 번째 공식회의를 개최했다.

‘빛고을생활권행정협의회’는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으로, 광주시는 지난 9월10일 빛고을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을 제정하고, 광역지자체와 인접 기초 지자체가 상생협력을 위한 공식협의체를 구성한 첫 번째 지역이 됐다.

11개 참여 지자체는 광주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등 광주지역 5개 자치구, 나주시·화순군·장성군·함평군·담양군 등 전남지역 6개 시·군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가 그룹이 발굴한 15대 협력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정부(지역발전위원회) 지원을 받기 위한 2016년도 선도사업 발굴을 협의했다.

또한 디자인비엔날레, 국제디자인총회, 나주 국제농업박람회, 담양 세계대나무축제 등 15개 대규모 행사와 축제에도 공동 협력기로 했다.

특히 15대 협력과제는 테마별로 ▲남도문화 융성 및 관광자원화(9개 사업) ▲빛고을생활권 인프라 구축 및 경제 활성화(3개 사업) ▲자연생태공원 및 휴식공간 조성(3개 사업)으로 분류해 추진키로 합의하고, 각 기관 연관 부서 간 정기 만남과 협의를 통해 절차에 중요성을 두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6월2일 정책 간담회에서 확정한 15개 협력과제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광주와 인근 시·군 상생협력협의체의 성공 모델을 만드는 상징성을 가졌다”면서 “앞으로 광주를 비롯한 5개 자치구와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 등 5개 시·군은 세심한 배려와 신뢰 속에서 실질적인 협력과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에 참가한 11개 자치단체는 KTX 개통으로 수도권과 동시 생활권시대가 열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나주 국제농업박람회,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 등 메가 이벤트가 광주와 인접 시·군에서 집중 열리는 등 상호 연계를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호기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와 생활권을 같이하는 인접 11개 자치단체가 참여한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가 지난 2일 전남 나주시청에서 첫 번째 공식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시 제공〉

5·18묘지~운정동 매립장 3.2㎞

2년간 10억 들여 명품 누리길 조성

광주시 북구 운정동 광역위생매립장 일대에 신재생에너지와 자연생태가 어우러진 명품 누리길이 조성된다. 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민자 유치로 들어선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환경·문화사업 공모사업에 ‘친환경 에너지타운 누리길’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내년부터 2년간 사업비 10억원으로 5·18국립묘지와 매립장 일대 총연장 3.2㎞에 생태 탐방로를 조성한다. 누리길을 조성하는 위생매립장은 20년간 사용 후 지난 2004년 매립을 완료한 곳이다.

광주시는 누리길을 인접한 국립 5·18묘지와 연계해 인권과 환경을 조화시킨 인권생태 탐방로로 조성할 계획이다.

누리길 중간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시설을 설치하고, 체육공원에는 게이트장 등을 조성한다.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외곽에는 보행 데크, 의자, 전망대, 표지판, 쉼터 등을 설치해 주민과 탐방객에게 체험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매립장 27만9000여㎡에는 사업비 288억원이 투입돼 발전용량 20MW의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운정동매립장 일대는 자연 생태가 잘 보전돼 경치가 좋고 주변 관광 자원도 풍부하다”며 “친환경에너지타운과 연계해 전국 최고의 명품 산책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일해도 가난 ‘워킹푸어’

광주 5.8%, 전남 7.4% 최다

직업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이른바 ‘워킹푸어’가 광주·전남지역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EITC 지급 비율이 7.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가 5.8%로 광역시 가운데 제일 높았다. EITC란 노동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ITC 지급 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근로 빈곤층이 많다는 뜻으로 지난해 전남지역은 68만5000가구 가운데 5만1000가구가, 광주는 51만9000가구 가운데 3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각각 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

신당 창당 선언한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인터뷰

“신당은 욕심 아닌 시대적 책무”

예정대로 12월에 창당

현역 국감 후 합류 기대

신당통합땐 100석 넘을것

새정치로는 총선 필패

분열 역풍 최소화 할 것

호남 정치권 정신차려야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지난 7월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에 이어 지난 달 신당 창당을 선언하자 반응은 엇갈렸다. 야권 재편의 물꼬를 트는 ‘결단’이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 명분과 현실을 고려한다면 신당 창당은 무리한 측면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4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지사는 “신당 창당은 정치적 욕심이 아닌 시대적 책무”라며 묵묵히 야권 재편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신당 창당은 잘 되고 있나.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10월 발기인 대회, 12월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있어 힘이 난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와 예산 국회를 끝내는 12월 말이나 연초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한다.

-분열의 우려도 크다.

▲새정치연합으로 승리할 수 있다면 신당 창당은 명분이 없다. 하지만 새정치로는 내년 총선은 필패다. 민심은 새정치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지난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다시 확인됐다. 우세지역이었던 광주와 수도권에서 전패했다. 분열의 역풍은 최소화될 것이다. 신당의 출범은 필연이다.

-신당의 지지율이 낮다.

▲당연하다. 기대를 많이 했다가 신당 창당 세력이 갈리자 실망한 민심이 경고를 보내고 있다. 하나로 단결해서 신당을 만들라는 주문이다. 신당 세력이 통합된다면 지지율은 급상승 기류를 탈 것이다.

-신당 통합의 시기는.

▲원탁회의 등을 통해 올해 내에 통합의 결과물을 내야 한다. 신당을 창당하기 전에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신당 세력이 통합하지 못한다면 창당의 의미가 퇴색한다. 모든 이견과 세력을 녹여내는 용광로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권 창출의 희망과 비전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는 민심의 요구다.

-차기 총선 전망은

▲신당이 통합해서 나선다면 제1야당으로 도약할 것이다. 최소 100석을 넘어설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정권 창출을 이뤄내겠다.

-정치적 목표는

▲지사를 그만두고 농장을 하며 채소를 가꾸려 했다. 하지만 청년이 절망하고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 호남과 국가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과거 목숨을 걸고 쟁취해냈던 자유와 민주와 인권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다. 이제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 야당이 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 내게 요구되는 역할을 하겠다.

-새정치 혁신안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크다.

▲요지는 하나다. 안심번호 국민경선은 사실상 당원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원 경선의 부작용이 있으면 적극적 방지책을 써야지, 왜 경선에서 배제하나. 당원을 불신하고 배제하는 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 국민 참여는 명분에 불과하다. 여론조사는 조작의 가능성이 크다. 과거 이를 충분히 경험했다.

-호남의 위기의 원인과 대책은

▲정치, 사회 등 각 분야에서 고립돼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호남당’의 굴레를 벗어야 한다는 논리가 팽배하다. 사실상 배척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호남이 점차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호남 정치권이 정신 차려야 한다. 의원 한 번 더하기 위한 패거리 정치, 계파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적 의식이 높은 호남 민심도 과감한 선택과 집중으로 적극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신당이 촉매제가 되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양만청, 1조 규모 화양지구개발 시행자 국제 공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만청)이 화양지구 관광단지 개발 재개를 위해 5일부터 3개월간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국내 및 국제공모를 진행한다.

광양만청은 4일 “여수 화양지구에 1조 700억원 규모의 복합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국제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수 화양지구는 바다에 인접한 9.99㎢ 규모의 관광레저형 경제자유구역이다. 일상해양산업(주)에서 1.16㎢ 부지에 골프장, 연수원 등을 건설해 운영중에 있고, 13만4000㎡ 규모의 콘도(350실)와 6만1000㎡ 규모의 5성급 호텔을 신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광양만청은 화양지구 개발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1.43㎢의 개발과 함께 나머지 8.56㎢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를 선정에 나선 것이다. 공모에는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컨소시엄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업체는 각 지구별 대상지의 사업 목적에 맞춰 사업 계획을 제안하면 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양=배영재기자 byj@kwangju.co.kr